

##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제언\*

### - 포도원 주인이 능력주의를 대처하는 법

이지성 (루터대학교 부교수)

- I. 2022년 한국사회 능력주의 단면들
- II.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함수관계
- III. 허구의 ‘능력주의’와 현실화된 불평등
- IV.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 V. 포도원 주인이 능력주의를 대처하는 법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09>

\* 본 논문은 2022년도 루터대학교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으며 2022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포도원 주인이 능력주의를 대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글을 참가자들의 토론과 제언을 담아 수정 보완했습니다.

---

• ABSTRACT •

---

A Christian Social Ethics Approach on Meritocracy Society:  
How the Vineyard Owner Copes with Meritocracy

Associate Prof., Lee, Jie-sung (Luther University)

Modern society appears to be dominated by meritocracy. In pursuit of meritocracy, our society regards nothing other than 'merits' in times of infinite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Even consideration of the disadvantaged is seen as 'unfair' in society. Meritocracy has historically emerged as an innovative ideology that destroyed the feudal social status in the past. However, undergoing capitalism and neoliberalism, meritocracy is criticized for disguising justice and being the source of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justice and equality inherent in meritocracy - whether the effort and merit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are created by individuals or by a mere formality. As an alternative to meritocracy that reproduces inequality, the study explored 'The Rise of the Meritocracy' by Michael Dunlop Young and R. H. Tawney's concept of Christian Ethics - 'Equality' and 'Dignity.' In conclusion, with the Christian narrative 'The Parable of Vineyard owner' that fulfilled the restoration of such dignity, the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to overcome meritocracy.

**Key words:** Meritocracy, Inequality, Michel Young, R. H. Tawney,  
The Parable of Vineyard Owner

---

## I. 2022년 한국사회 능력주의 단면들

2021년 영국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한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67개국 중 29번째 살기 좋은 나라이며,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는 최상위(2, 3위)를 차지했지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분야에서는 147위로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되었다.<sup>1)</sup> 2020년 통계치(139위) 보다 8계단 하락된 순위다. 사회적 자본지수는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데 구성원간의 신뢰와 상호작용하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있는지가 주요 평가 요소이다.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이다. 즉 통계치로 본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공적 기관도 나를 돕지 않는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말이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으며 내 능력(merit)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에 내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sup>2)</sup>는 개인들의 무한 경쟁 상황과 만나서 ‘능력’ 이외에 다른 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약자에 대한 배려조차 ‘공정하지 않음’으로 여기도록 하는 촉진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세간을 뜨겁게 달군 ‘이준석 현상’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0대 젊은 야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동원한 ‘반페미니즘’과 ‘전국장애인연합회와의 대립’등 ‘갈라치기’구도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능력주의’ 담론은 공정성으로 포장된 능력주의를 사회문제

---

1) Legatum Institute, 2021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 a tool for transformation*, 51-52, [https://www.prosperity.com/download\\_file/view\\_inline/4429](https://www.prosperity.com/download_file/view_inline/4429) 2022년 11월 11일 접속

2) Meritocracy는 능력주의, 공적주의, 실력주의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메리트크라시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학계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 해결책으로 동원하면서 사회를 더욱 경쟁사회로 몰아 넣으며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로 작용되고 있다.<sup>3)</sup> 능력이 개인적 차원의 특징이라면, 능력주의는 명백하게 사회의 특징으로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과도한 내면화는 능력주의를 매우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신봉하게 했고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며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난해 국제여론조사기관 Ipsos가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 전쟁 (culture war)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 나라 국민이 느끼고 있는 문화 전쟁 체감도는 12개 항목 중 세대간, 성별간, 정당, 이념, 종교, 교육격차(대학교육 유무)에 따른 긴장 7개 부문에서 1위를 빈부격차 2위, 사회적 계급간 긴장 2위, 엘리트 계급과 노동자들 간 긴장은 3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이민과 인종 항목에서만 낮은 수준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문화 전쟁을 체감하고 있다고 나타났다.<sup>4)</sup> 통계 결과로 이 사회를 진단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일상이 갈등이고 전쟁인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을 통합하는 하나의 생각이 바로 ‘능력주의’다. 각각의 갈등 영역에서 모두

3) 이 밖에도 능력주의에 대한 과도한 내면화 및 혐오 대상을 향한 무차별적 정당화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2017년 서울 교통공사 무기 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히키 단일팀’ 구성, 통일이 아닌 ‘무임승차’, 공정성 반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 동등 대우에 따른 논쟁,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전공의들 파업, 2022년 국평오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능 5등급\_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학력 폄훼) 등의 논란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관련되어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4) 김호기, “대통령 선거와 문화전쟁,” 『경향신문』 2021년 8월 17일, 2022년 9월 9일 접속.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170300045#c2b> 해당 결과는 ipsos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Tension between rich and poor is seen as a key source of division around the world,” <https://www.ipsos.com/en/culture-war-around-the-world> 2022년 11월 11일 접속.

암묵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지위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것이 비록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공정하기에 능력주의야말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능력주의가 이 일상이 전쟁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까?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샌들(Michael Sandel)은 *The Tyranny of Merit*<sup>5)</sup>에서 미국 사회가 이토록 불평등한 야만 사회가 된 이유가, 바로 능력주의 때문이며 능력주의 때문에 엘리트 계급이 된 승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 대중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앞의 입소스 문화전쟁 체감도에서 계급간 갈등의 부분에서 미국은 한국 다음 2단계 아래인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부 갈등도 상위에 있다. 국내 학자들의 능력주의 연구들도 대부분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능력주의를 ‘시험능력주의’<sup>6)</sup>로 명명하며 한국형 능력주의<sup>7)</sup>는 강하게 타파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8)</sup> 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연구정책보

---

5) Michael Sandel,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서울: 와이즈베리, 2020).

6) 능력주의 연구 중 가장 최근 발표된 ‘시험능력주의’는 저자가 교사와 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겪었던 능력주의의 폐해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능력주의를 ‘시험능력주의’로 명명하며 조망했다. 김동춘, 『시험능력주의: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서울: 도서출판 창비, 2022).

7) 박권일은 능력주의가 한국에서 발현되는 현상을 K-Meritocracy라고 부르며 능력주의가 한국에서 형성된 과정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능력주의의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국내 연구들 중 주목할 만한 논의라고 보인다.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K-Meritocracy』(서울: 이데아, 2021).

8) 장은주는 능력주의 담론을 초기부터 이끌고 있으며 교육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메리트크라시가 크랩토크라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장은주, 『공정의 배신-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서울: 피어나, 2021). 장은주,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128 (2021), 134-151. 장은주, “한국 사회에서 메리트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사회와 철학』 21 (2011). 본 논문은 이 외에도 능력주의에 대한 국내 연구들 중 장석준,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서울: 갈라파고스, 2022), 김주현,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법철학연구』 25 (2022), 27-52

고서 『한국 근현대 능력주의의 역사와 신화』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것’의 위기, 나아가 해체를 가져온다”<sup>9)</sup>라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애초에 능력주의가 과정의 평등에는 주목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전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능력주의는 사회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강화되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다. 샌들이 능력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엘리트의 오만과 다수 대중들의 모멸감, 그리고 노동의 존엄 파괴, 패배로 인한 절망사라고 지적했다. 이 주장을 지금 한국 사회에 견주어 보면 전쟁같은 일상의 주범이 능력주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II.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함수관계

공동체 구성원이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기회를 얻는 제도는 과거 봉건사회의 신분제라는 구습을 타파한 혁신적으로 등장한 이데올로기이다. 굳이 ‘재능에 따른 출세’를 언급한 프랑스 혁명과 ‘누구나 엘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미국독립선언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능력에 대한 긍정은 곧 인간과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새로운 힘이었고 사회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를 담지하고 출발했음은 분명하다.

‘능력주의’라는 개념은 1956년 앨런 폭스(Alan Fox)라는 사회학자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사회의 엘리트 계급이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를 설명하면서 등장했다.<sup>10)</sup> 2년 후, 1958년 마이클 영(Michal

등에서 각각의 통찰을 참고하였다.

9) 황병주 외, 『한국 근현대 능력주의의 역사와 신화』 경제·인문사회연구소(2021) 3.

10) Fox, Alan, “Class and Equality.” *Socialist Commentary*. May 1956, 13.

<https://www.wordorigins.org/big-list-entries/meritocracy>에서 재인용, 2022년 9월

Young)의 소설 속에 등장하면서 주목받게 되는데, 영은 “능력주의라는 개념은 세습 신분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이행하는 합리적 과정 속에 성공을 개인 능력과 노력의 산물로 치환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sup>11)</sup> 라고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층위의 사회 속에서 실천과 제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능력주의는 세습이나 상속 같은 구습을 타파하기 원하는 진보성향의 정치영역과 노동계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점차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능력주의는 자본주의를 만나 ‘지위와 보상을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리에 의해 작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위와 보상은 직업과 소득으로 등치되었다. 즉 능력에 따라 직업과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도식으로 환원되면서 한정적인 직업과 소득은 소수 특권자들의 몫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는 고전적 해석이 아닌 ‘특정 직업과 소득을 분배하는 사회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에서 스티븐 J. 맥나미는 “능력주의가 처음에는 나무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으로 보였지만 잔인하고 무자비한 다윈의 ‘적자생존’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 능력 없는 사람은 생존조차 할 수 없는 무자비한 차별과 탄압이 가해지는 부작용이 상당하다”<sup>12)</sup>라고 이야기한다. 맥나미는 구체적으로 이 부작용을 부추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능력을 이겨버리는 비능력적 요인들을 “차별적 교육 기회, 불평등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특권의 상속과 부의 세습,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 자영업자의

9일 접속.

11) 마이클 영, *Meritocracy*, 유강은 옮김, 『능력주의: 2034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서울: 이매진, 2020).

12)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능력주의는 허구다』 *The Meritocracy Myth*. 김현정 옮김, (서울: 도서출판 사이, 2015), 16.

자수성가를 방해하는 대기업, 편견에 의한 차별<sup>13)</sup> 등을 능력주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평등과 공정이란 결국 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이며, 과정의 평등에 집중하면서 기회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형식적 평등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기회 평등이란 기껏해야 사회의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 정도라는 말이다.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함수 관계는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매우 잘 드러난다. 장은주는 교육과 능력주의의 관계에 대해 “능력주의란 좁게는 여러 선발과정을 거쳐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갖는 체제, 일반적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그런 방식이 정당화되는 사회 체제<sup>14)</sup>”라고 정의하면서 그 속에서 ‘교육’은 매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능력주의가 결국 크래토크라시적인 사회의 실상을 옹호하기 위해 활용되며,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 ‘공정한 선발과정, 즉 시험’에 대한 신봉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험의 공정성(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집착, 결과의 불평등에 무관심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 결과 마이클 영의 지적처럼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현실화 되어간다. 문제는 그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정의란 ‘분배적 정의’를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거기서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sup>15)</sup>”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13) 앞의 책, 102.

14) 장은주, “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사회와 철학』 21 (2011), 71.

15)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서울: 이제이북스, 2008), 1131a 169.

것이 ‘분배적 정의’이다. 샌들이 말하는 정의도 기본적으로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sup>16)</sup>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익, 부담 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합당한 몫, 마땅히 가져야 할 몫만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기가 가져야 할 몫만 갖는 것이 정의이고 그런 상태를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바람직한 분배적 정의란 무조건적이며 무차별적인 평등이 아니라 가치나 기여에 따른 차등 분배, 즉 공직, 부, 권력 등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분배하는 것”<sup>17)</sup>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다르게 분배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그것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능력주의는 그 기준을 능력과 노력이라고 보고 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평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장은주는 이 지점에서 ‘기여 원칙’이 작동하는데<sup>18)</sup> ‘기여 원칙’은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재화의 생산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주어지는 보상의 격차를 공정하다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기여 원칙이 사회 구성원들의 수입이나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데 매우 설득력있는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여의 정도가 다르다면 모두에게 같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능력에 따라 생겨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게 되고 이것이 능력주의의적인

16)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김명철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4), 33., 장은주, 『공정의 배신』, 73. 재인용

17) 장은주, 위의 책, 74.

18) 위의 책, 80.

정의관으로 고착되고 있다.

또한 그 능력과 노력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들이 스스로 창출해낸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능력주의는 합당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만이 공정’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여기서 공정은 절차적 공정, 즉 형식적 공정이며 이미 승자독식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평등은 포기하더라도 ‘공정함’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엄밀히 ‘공정’은 능력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롤즈의 경우, 형식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의 전부라고 보지 않는다. 성공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주장은 신분제 사회 보다는 진일보 했지만 ‘기회균등’을 매우 협소하고 단선적으로 해석이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즉 ‘자연적’ ‘사회적’ 의존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는 기회균형, 지역균형 등 차별철폐원칙을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롤즈는 이것도 충분히 공정하지 않으며 자연적 소질, 재능의 불평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경쟁에서 재능, 환경 같은 운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기본구조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회적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확보한 재화를 공유하는 구조에 대한 강조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가 자존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롤즈는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차등원칙’을 제시한다.

롤즈의 능력주의에 대한 경계는 이 ‘차등 원칙’ 적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출발점을 유리하게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할 수 있지만, 능력으로 얻게 된 이익은 공동체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19)</sup> 이를 위해 롤즈는

사회 구조 변경을 요청한다. 타고난 능력에 비해 후천적으로 혹은 세습적으로 주어진 능력 또한 ‘가정과 사회적 영향<sup>20)</sup>’으로 보는 것이다. 롤즈에게 윤리적 가치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가능하게 된다.

샌들 또한 성공이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능력주의의 주요 요소인 ‘노력’, 과연 가장 공정해 보이지만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가? 정서적으로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다. 교육의 차원에서 설명해 본다면 한 개인의 능력은 부모의 지능이나 유전, 경제적 수준,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의 상속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교육이란 결국 부모 혹은 세습된 배경이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이클 영 또한 교육 제도는 사람들이 가진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가능성을 줄여 매우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제라고 평가한다.<sup>21)</sup> 이 체제 아래서 교육은 능력 있는 사람을 추려낼 수 있는 시험장이며, 학력과 성적이 능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적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회의 중요한 자원은 소수 특권 세력이 반메리토크라시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재화에 대해 협소한 메리토크라시적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주류 특권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가 능력주의라는 것이다.

결국 “능력주의의 문제는 불평등을 재생산한다”<sup>22)</sup>는 정의로 귀결될 수

19)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옮김, 정외론』(서울: 이학사, 2003), 35-96.

20) 최경석, “능력에서 연대로-“오징어 게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바라보기,” 『기독교사회윤리』 53 (2022), 111-138.

21) 마이클 영, *Meritocracy*, 250.

22)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K-Meritocracy』, 200 이하, 박권일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특권’이라고 보고 있다.

밖에 없다.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희소한 자원을 소수가 더 많이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능력주의 자체를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개인 능력 차이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사회 속에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생산한다고 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생산한다는 것은 도출할 수 있는 도식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주의의 대안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sup>23)</sup> 특히 능력주의의 전제에 대한 질문이 요구된다. 평등에 대한 원칙만 주장하면 능력주의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권일은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특권’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강자의 몫을 제한하고 약자의 몫을 인상하자는 것. 또한 이 제한과 인상의 기준은 약자의 처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동의할 수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능력주의와 그로 인해 발생한 혐오의 상황을 특권의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다원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사실 능력주의와의 싸움은 현실적으로 비판적이기만 하다.

영은 이 지점에서 “평등이란 사회의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는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타고난 덕과 재능, 인간 경험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즉 삶의 잠재력을 지능과 상관없이 최대한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sup>24)</sup>이라고 주장한다. 능력주의는 승자가 정해져 있는 결과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 공정한 규칙만 적용한다면 그 게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그것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신념으로 오늘도 그 게임

23) 마이클 영, *Meritocracy*, , 251.

24) 위의 책, 269.

에는 사람들이 몰려 들고 있다. 그 게임에서 이미 평등은 무의미해졌다. 평등을 버린 공정과 정의는 과연 이 사회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 마이클 영의 소설 『능력주의』는 허구의 상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두 자멸에 이르는 디스토피아로 끝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허구를 현실로 매우 생생하게 실현하고 있다. 우리의 결론이 디스토피아로 치닫기 전에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허구의 소설 안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작은 단초를 찾아 보고자한다.

### III. 허구의 ‘능력주의’와 실현된 디스토피아

마이클 영의 소설 『능력주의』는 1958년 출판되었지만 1870년부터 2034년의 시간을 오르 내리며 지능과 노력의 결정체인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조망하고 있다. 소설의 전반부는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귀족주의와 세습주의가 무너지고 능력주의와 함께 사회의 엘리트들이 태동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후반부는 이러한 능력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폐해를 나열한다. 새로운 하층 계급이 형성되고 포퓰리스트들의 분노가 표출되거나 저항이 생겨난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소설 속에서 1960년~1970년대는 능력주의 사회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시기로 유치원에 우열반이 생기고 지능검사는 세밀해지며 능력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사교육과 심지어 부유층은 하층 계급의 머리 좋은 아이들을 입양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에는 아이큐가 125<sup>25)</sup>이상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 시기인 2034년에는 태아의 아이큐를 미리 검사하고 상류층 아이들의 아이큐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 조작도 시도된다. 결과

25) 영의 소설에서 아이큐 125는 상위 5% 엘리트 집단의 상징이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적으로 교육의 진입 기회가 공정해 졌지만 인간의 평등은 자리를 잃게 되고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다. 그 시기에 이르는 동안 하층계급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계층 사다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시험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열등생’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sup>26)</sup> 그들은 스스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존감을 지탱할 버팀목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채 능력 신분제 아래에서 ‘가내 하인’ ‘가사도우미단’ 살아가야 한다. 결국 소설이 마무리되는 2034년 5월 피털루라는 지역에서 하층계급의 봉기가 일어나고 소설의 화자이자 능력주의 신봉자였던 작가의 분신은 그 봉기 과정에서 살해된다.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작가는 마지막 봉기 바로 앞에 2009년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기술자당<sup>27)</sup>의 한 지역 협의체가 ‘능력주의’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소위 ‘첼시 선언’에 관한 내용이다. 그 협의체는 한 사람이 근본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각자 내면에 선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모든 남자, 심지어 모든 여자가 어떤 일, 예를 들어 냄비 만들기, 데이지 꽃 기르기, 종치기, 아이 돌보기 등 어떤 재능이든 발견해서 존중하는 일이 사회가 할 소임이라고 말한다. 영은 특히 ‘첼시 선언’의 마지막 문단은 인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며 그대로 옮겨 담았다.

26) 마이클 영, *Meritocracy*, 174.

27) 소설 속에서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하층 계급은 최소한의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노동자라는 호칭 대신 기술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소득과 열등한 삶이 회복될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 ‘기술자당’이라는 호칭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하면 첼시 선언이 지향하는 바가 좀 더 선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계급 없는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소유하는 동시에 그런 가치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회가 되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지능과 교육, 직업과 권력만이 아니라 친절함과 용기, 상상력과 감수성, 공감과 아량에 따라서도 평가한다면, 계급이 존재할 수 없으리라. ... 어느 누가 아버지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경비원 보다 과학자가 우월하며, 장미 재배하는 데 비싼 숨씨를 지닌 트럭 운전사보다 상받는 일에 비싼 기술이 있는 공무원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계급 없는 사회는 또한 개인적 차이를 수동적으로 관용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장려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마침내 그 온전한 의미를 갖게되는 관용적인 사회가 되리라. 모든 인간은 어떤 수치적 잣대로 비춰 봐 세상에서 출세할 기회가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이끌기 위해 자기만의 특별한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게 되리라.”<sup>28)</sup>

이 선언문에 대해 작가인 영은 선언문 작성자들이 생각하는 기회 균등이란 사회의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타고난 덕과 재능, 인간 경험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삶의 잠재력을 지능에 상관없이 최대한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선언문을 부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말미에 적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단순히 사회에 필요한 잠재적인 직무 담당자가 아니라 소중한 개인이다. 학교는 직업 구조에 밀접하게 결부돼 어떤 특정한 순간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재능을 장려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재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술과 손재주도 과학과 기술만큼 중시돼야 한다. ... 그러면 학생들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발전하면서 자기 나름의 특별한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sup>29)</sup>

28) 마이클 영, *Meritocracy*, 270.

결국 소설은 능력주의라는 유토피아가 디스토피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끝을 맺는다. 출간 이후 이 소설은 현대 사회의 조직 체계를 예리하게 예언한 책으로 널리 읽히고 유명세를 탔지만 실상 능력주의의 양면성에 대한 경고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sup>30)</sup> 이는 2001년 영국 노동당 소속 토니 블레어 총리의 “영국을 완전히 능력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마이클 영이 『가디언』에 “내가 그 책을 쓴 일을 뼈아프게 생각하며 능력주의는 타도 되어야 한다”<sup>31)</sup>고 칼럼을 기고한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영은 이 칼럼에서 능력주의가 긍정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능력과 평등의 문제를 고려해 보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어쩌면 영은 소설 전체의 줄거리 속에서 마지막에 얼핏 언급된 첼시 선언의 몇몇 문장들에서 그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친절함과 용기, 상상력과 감수성, 그리고 공감과 아량을 평가하며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sup>32)</sup>란 과연 어떤 사회일까?

29) 위의 책, 272.

30) 위의 책, 313. 옮긴이의 글 ‘능력주의 말하기, 『능력주의』 읽기 중에서 인용

31) Michael Young, “Down with Meritocracy, The man who coined the word four decades ago wishes Tony Blair would stop using it,” *The Guardian*, 29, June, 2001.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1/jun/29/comment> 2022년 9월 30일 접속.

32) 장석준,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 (서울: 갈라파고스, 2022), 166. 장석준은 한국의 능력주의를 계급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 또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영의 대안을 해석하며 근대적인 노동계급은 다시 부활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이 사회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를 ‘능력의 다원론’이 인정되는 사회라고 부르며 첼시 선언이 담고 있는 결론은 인간들 각자의 무수한 능력들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이끌기 위해 자기만의 특별한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 IV.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버리기

‘지능과 교육, 직업과 권력’이 아니라 ‘친절함과 용기, 상상력과 감수성, 공감과 아량’으로 평가되는 사회를 상상해 본다. 영이 지향하는 가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니 막막하다.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들도 이 지점에서 대부분 교육제도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여년 전부터 대학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에 대해 문제제기 평준화 실현 노력하고 있고 지난 정권의 경우도 대학서열 철폐를 주장하며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대학 평준화를 주장했지만, 구호에 그치고 공정한 입시 제도 마련에 공을 들였다. 샌델도 능력주의 해소 방안으로 『공정이라는 착각』에서 아이비리그 대학들 추첨제 선발 제시한다. 매우 강한 어조의 능력주의 분석과 비판에 비하면 용두사미같은 결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교육개혁이 특히 시험능력주의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K-Meritocracy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선제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지만 좀 더 전방위적이며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영이 소설에서 잠시 언급<sup>33)</sup>한 인물이 있다. 페이비언사회주의 자들과 조금 다른 선상에서 노동의 존엄에 관해 기묘한 말을 한 사람들로 등장하는데 모리스 부부, 토니 부부, 콜 부부이다. 이들 중 토니 부부로 호명된 인물은 R. H. 토니(1880~1962)는 사회경제학자로 영국 노동당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던 인물<sup>34)</sup>이다. 도덕을

33) ‘능력주의’내에서 레이비언사회주의자들과 대비하며 언급한 세 부부가 등장한다. 이들은 책 전체에서 매우 작은 비중으로 다루어지지만, 영국사회에서 매우 영향력을 가졌던 실존하는 인물들이다.

34) 국내에서 R. H. 토니를 오랫동안 연구한 고세훈은 그를 정치인, 사회활동가, 성인교육 개척자, 완전무상의 중등교육 주창자, 대학개혁가로 삶과 경험과 현실 사회 속에서 균형을 이룬 인물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의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고세훈, “R. H. 토니의 사회경제사상 : 기독교적 위상과 한국적 함의,” *OUTHOPIA*, 30-2

배제하고 효율과 편익에 초점을 두고 다수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소수에  
 게 부과되는 반사회적 착취를 페이비언사회주의를 비판했다.<sup>35)</sup> 그는 과  
 거 경제적 삶은 도덕의 일부였지만 세속/계몽주의로 인해 경제가 도덕적  
 규제를 벗어나 윤리부재의 영역으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를 탈취  
 하는 것에 무제한적으로 몰두되는 탈취 사회(Acquisitive Society)<sup>36)</sup>가 탄  
 생했다고 지적한다. 탈취 사회의 반대 개념으로 기능 사회(Functional  
 Society)를 제시하는데, 이 사회는 소유주의 이익이 아닌 공공서비스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개인을, 엘리트 중심이 아닌 모두를 지향하는 사회  
 이다. 특히 토니는 평등을 편익(expediency)의 차원으로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면서<sup>37)</sup> 신에 대한 믿음과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것  
 을 강조했다.

“기독교적 인간개념의 당연한 귀결은 강력한 평등의식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키가 크고 살이 찌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영민하  
 거나 동일하게 덕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다. ...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단지 그들  
 이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다.”<sup>38)</sup>

토니는 각각의 기질과 재능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은 인간이라는 공  
 통점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는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 각자의 자  
 질을 고려해서 부와 출생, 지위의 차이가 덜 강조되도록 사회가 조직화되  
 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는 각각의 사람들을 모두 동일한 필요를 지닌 존

(2015), 5-31.

35) 영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능력주의의 대안의 단서로 이들을 지목했다고 보인다.

36) 탈취 사회는 ‘취득 사회’로 번역되기도 한다.

37) 고세훈, 『R. H. 토니 : 삶, 사상, 기독교』 (서울: 아카넷, 2019), 104.

38) R. H. Tawney, *Christian Politics* (London: Socialist Christian League, 1954) 13.

R. H. 토니, 고세훈 옮김,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 한길사, 2015), 26, 재인용.

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며,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한다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이 누리는 문명의 유산에서 배제되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간애가 하찮은 경제적 격차 때문에 빛을 잃게 되는 것”<sup>39)</sup>이다. 토니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똑같이 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런 분배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상이한 개인들 간의 보수의 차이는 낫되, 상이한 계급문명간의 대비가 사라진 사회”<sup>40)</sup>였던 것이다.

또한 토니가 이러한 수량적 평등만큼이나 부정했던 것이 비례적 평등인데, 이것은 종종 ‘공정’의 개념으로 다루어지곤 한다. 특히 평등 보다는 공정을 우선시하는 능력주의자들은 ‘기회의 평등’이 공정함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들의 논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재능에 대해 보상을 얻을 권리가 있고, 제도가 발생시킨 차별은 수용하지 않지만 자연적 능력으로 인한 차별은 정당하다”<sup>41)</sup>고 여기게 된다. 토니는 이런 차원의 기회의 평등은 과거 봉건사회에서 법적 평등을 위한 해방적인 구호일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의성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한다. 그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출신, 직업,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신체, 성품, 지성이 부여받은 본래적 자질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을 때, 오직 그때에만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누군가 능력 혹은 역량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위축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된다면

39) R. Tawney, *Equality, with an Introduction by Richard Titmus*, (Londoon:Unwin Books, 1964) 103-104, 고세훈, 『R. H. 토니 : 삶, 사상, 기독교』, 67, 재인용.

40) 위의 책, 72. 고세훈은 토니의 『평등』의 주요 내용들을 앞의 책 4부에서 세밀하게 다루고 결론에 이르러 토니의 ‘평등’ 사상이 영국사회주의 사상의 발전에 이정표를 제시한 중요한 저서이지만, 평등에 대한 개념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평등한 배려’가 차별 정당화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정책적으로 제안한 교육체제 등의 적용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41) 위의 책, 67.

그 ‘기회의 평등’은 사실 초라한 가공물로 전락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토니는 기회 평등(혹은 균등)이란, “달갑지 않은 손님에게 형편상 그가 응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미는 초대장의 무례한 정중함”<sup>42)</sup>이며 몇몇 노예가 해방되어 노예 소유주가 되었다고 해서 노예제가 견딜만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국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토니는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재물이나 재산의 부족함이 아니라 도덕의 부재라고 보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이라는 역작을 통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사회 윤리적 권위를 잃어버렸고 사회는 사적인 권리와 이익 추구 앞에 제한 없이 짓밟혀지고 탈취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불평등의 종교가 자리 잡았는데, 불평등이란 반인간적이며 경제적 진보를 방해하고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억압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토니에게 평등이란 부나 재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차원이었다. 그에게 인간은 신이 보기에 평등한 존재이므로 서로 평가나 행동을 할 때 평등해야 하며 모두가 공정하게 여겨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은 무한히 위대하고 무한히 취약하다는 것 외에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sup>43)</sup> 따라서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까지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탈취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인 동료애’를 제시한다. 토니가 평등의 문제를 분배정의의 지평에서 관계의 지평으로 확대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즉 그가 추구한 평등은 ‘동료

42) 위의 책, 106.

43) 위의 책, 65.

애를 위한 평등'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상황에 따라 고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사회윤리이며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토니가 말하는 동료애는 평등에 기초하고 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평등이 동료애의 충분조건은 아니고 필요조건이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올바른 관계'가 동료애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고 올바른 삶의 조건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지배는 허용되지 않고 각자는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토니는 평등을 '편의'의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에게 평등은 계산적이며 분배적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차별이 아니라 '함께'라는 동료애의 성취였다.

동료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는 구조의 문제였다. 한쪽이 다른 쪽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때 동료애는 존재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불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료애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역할은 자본주의적 분배적 정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하는 운명을 부여받게 된다.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지향해야 할 것은 단지 개성이 꽃피고 사회적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띠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인간이 인간인 한, 가난한 사회도 올바른 삶의 질서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은 아니며, 부유한 사회도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지 않다. 즉 권력도 부도 그 자체 목적이 아닌 바, 목적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이다.<sup>44)</sup>

44) 위의 책, 61.

이 지점에서 영이 첼시 선언에서 주장한친절함과 용기, 상상력과 감수성, 그리고 공감과 아량을 평가하며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와 토니의 기능 사회가 일정 부분 맞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은 능력에 대한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평등에 기초하여 각 개인의 존엄을 회복하는 관계를 지향한 사회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바로 이 ‘존엄’의 회복을 성서의 내러티브, 포도원 주인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 V. 포도원 주인이 능력주의를 대처하는 법

최근 국내 연구자들의 마태복음 20장 1절~16절의 포도원 주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 비유에 대한 ‘사회 경제적’ 함의를 드러내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박경미는 “자기 몫을 포기하고 나누라”는 공동체 회복을 도덕적 경제에 대한 시선으로, 김학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담론과 고대 그리스의 호혜 관계에 대한 맥락으로 해석하며 불의한 구조로 짜여진 세계에서 공동체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시정적 정의를 향하고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 호혜를 회복할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관점을 토대로 제안한 바 있다.<sup>45)</sup> 본 연구자는 성서학적 연구 배경과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본문 해석 보다는 이 비유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접근, 윤리학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도움을 받은 것은 양재훈과 이혁배의 연구에서 보여진 시선이었고 차별지향적 삶을 ‘정의’로 착각하는 성서의 인물들을 지적한 클라인 스노드그라스(Klyne Snodgrass)의 해석도 의미 있는 자료였

45) 박경미,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 (서울: 녹색평론사, 2010). 김학철, “정의롭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정의와 호혜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20장 1-16절 읽기,” 『신약논단』 23-4 (2016), 895-931. 참조.

다. 양재훈은 이 논문에서 포도원 일꾼들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상응적인 보상이 차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통념”<sup>46)</sup>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은 늘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습성의 발현이라고 본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였다고 주장이다. 이혁배는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주인의 행동을 “교환이 아닌 증여로 읽으며 능력과 업적이 기득권이 되어 인간 존재를 가치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기본적 노동의 조건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안으로 읽어야 한다”<sup>47)</sup>고 주장한다. 즉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차별지향적인 세계관을 고발하고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차별 우위로 만족하는 인간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인 것이다.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서 이려고’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종일 노동 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건네주는 포도원 주인이 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 데나리온’ 중 ‘하나라는 재화의 가치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투덜거리고 다투고 서로 혐오하고 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나 ‘노동시간’이 아닌, 인간 그 자체였다. 포도원 주인의 분배 ‘태도’ 또한 눈길이 간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sup>48)</sup>

46) 양재훈, “그들은 왜 투덜거렸는가?,” 『신약논단』 23-2 (2016), 321.

47) 이혁배,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청년수당제도,” 『기독교사상』 (2016), 80.

48) 마태복음 20장 8절.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치른 그 이유가 궁금한 차에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러 되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 갈 몫이다.”(신명기 24:19) 말씀이 겹쳐진다. 이 구절은 ‘각종 보호법’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지만, 그 남긴 이삭을 가져가는 떠돌이나 고아, 과부의 마음을 헤아린 ‘존엄’의 방식이 엿보인다. 능력주의 안에 내재된 ‘정의로운 배분’이라는 가치 척도와 형식적 기준을 전폭적으로 해체한 포도원 주인의 분배 방식을 계급화 된 사회와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하는 능력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제안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R. H. 토니의 ‘동료애’와 첼시 선언이 주장한 인간의 존엄성이 마침내 그 온전한 의미를 찾게 되는 관용적인 사회에서 찾아 보았다. 본 연구는 사실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에 그치고 이러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적, 제도적 접근까지 다루지는 못했다.

현실 사회에 그 구체적 대안을 적용하는 일이 어찌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기독교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어렵고 고단한 길이었고 그 길이 옳다고 성서의 내러티브는 전하고 있다.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기회와 성공, 공정과 정의라는 이념 아래 버려진 인간 존엄의 회복과 서로를 헤아리는 ‘존엄의 방식’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민을 후속 연구에 담아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세훈. 『R. H. 토니 : 삶, 사상, 기독교』. 서울: 아카넷, 2019.
- \_\_\_\_\_. “R. H. 토니의 사회경제사상: 기독교적 위상과 한국적 함의.” *OUTHOSIA*, 30-2 (2015), 5-31.
- 김동춘. 『시험능력주의: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서울: 도서출판 창비, 2022.
- 김만권. “우과 포퓰리즘의 부상으로서의 이준석 현상.” 『황해문화』 2021, 55-73.
- 김민섭. 『유령들의 패자부활전』. 서울: 갈라파고스, 2022.
- 김주현.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법철학연구』 25 (2022), 27-52.
- 김학철. “정의롭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정의와 호혜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20 장 1~16절 읽기.” 『신약논단』 23-4 (2016), 895-931.
- 박경미.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 서울: 녹색평론사, 2010.
-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K-Meritocracy』. 서울: 이데아, 2021.
-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The Meritocracy Myth*. 김현정 옮김. 『능력주의는 허구다』. 서울: 도서출판 사이, 2015.
- 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 · 김재홍 · 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8.
- 양재훈. “그들은 왜 투덜거렸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읽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 『신약논단』 23-2 (2016), 295-329.
- 이시철. “메리토크라시의 주요 쟁점 분석: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4 (2021), 711-734.
- 이영달. 『메리토크라시. 학교교육의 새로운 미래』. 서울: 행복한국클럽, 2021.
- 이혁배.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청년수당제도.” 『기독교사상』 690 (2016), 78-88.
- 장석준.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 서울: 갈라파고스, 2022.
- 장은주. “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사회와 철학』 21 (2011), 71-106.
- \_\_\_\_\_. 『공정의 배신-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 서울: 피어나, 2021.
- \_\_\_\_\_.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28 (2021), 134-151.

조용훈. “기독교사회윤리 관점에서 본 능력사회 논의.” 『2022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정기학대회 자료집』 (2022), 6-15.

최경석. “능력에서 연대로 “오징어 게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바라보기.” 『기독교 사회윤리』 53 (2022), 111-138.

토니, R. H., 고세훈 옮김,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 한길사, 2015.

황병주 외. 『한국 근현대 능력주의의 역사와 신화』. 경제·인문사회연구소(2021).

Klyne R. Snodgrass. *Stories with Intent*. Michigan: Eerdmans Pub Co, 2007.

\_\_\_\_\_. Little Jo, *Against Meritocracy Culture, Power and Myth of Mobi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Markovits, Daniel.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s. New York: Penguin Press, 2019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옮김.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Sandel, Michael.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2020.

\_\_\_\_\_. 김명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와이즈베리, 2014.

Tawney, R. H., *Christian Politics*. London: Socialist Christian League, 1954.

Young, Michael.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유강은 역. 『능력주의: 2034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서울: 이매진, 2004.

• 온라인 자료

김호기. “대통령 선거와 문화전쟁.” 『경향신문』. 2021년 08월 17일.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170300045#c2b> 2022년 11월 11일 접속.

Fox, Alan. “Class and Equality.” *Socialist Commentary*. 13, May 1956.

<https://www.wordorigins.org/big-list-entries/meritocracy> 2022년 09월 09일 접속.

Legatum Institute. *2021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 a tool for transformation*.

[https://www.prosperity.com/download\\_file/view\\_inline/4429](https://www.prosperity.com/download_file/view_inline/4429) 2022년 11월 11일 접속.

Young, Michael. “Down with Meritocracy, The man who coined the word four

decades ago wishes Tony Blair would stop using it,” *The Guardian*. 29. June. 2001.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1/jun/29/comment>  
2022년 09월 30일 접속.

Ipsos, “Tension between rich and poor is seen as a key source of division around the world.” <https://www.ipsos.com/en/culture-war-around-the-world>  
2022년 11월 11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13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5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현대 사회를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진단하면서 시작한다. 능력주의를 추종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들의 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능력’ 이외에 다른 기준도 인정받지 못하는, 심지어 약자에 대한 배려조차 ‘공정하지 않음’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능력주의가 역사적으로 과거의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한 혁신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공정을 위장해서 불평등을 양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능력주의에 내재해 있는 공정과 평등 개념을 정의의 관점에서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들 스스로 창출해 낸 것인지, 과연 능력주의가 말하는 공정이 단지 형식적 공정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국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을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 ‘첼시 선언’을 단초로 R. H. 토니의 기독교윤리학적 ‘평등’과 ‘존엄’개념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존엄의 회복을 실현한 기독교의 내러티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능력주의, 불평등, 공정, 마이클 영, R. H. 토니, 포도원 주인의 비유

---